

도내 건설 '0' 해외 수주

경험·외환거래 등 전문지식 부족 지역할당 등 지원제도 마련 시급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대형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영세한 도내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이들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꾸려진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대한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 등 건설단체 2곳, 중대형 건설사 10곳이 참가하며 건설관련 공기업도 3~4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총출동, 현지에서 발주되는 SOC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이란 방문으로 최대 200억 달러(22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도내 업체들에게 해외 건설시장 개척은 사실상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다.

도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 업체들의 해외 건설 공사 수주 실적은 전무하다.

이는 해외 건설 경험이 없고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도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설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해외 건설공사 수주 진행절차와 외환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해외 건설공사 수주시 '지역업체 할당' 등 유망 중소 건설업체들을 배려하는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들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평창 동계 올림픽 특수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방향은 해외시장 개척에 있다"며 "하지만 도내 건설사들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강원본부 관계자는 "해외 건설시장에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의 영세·중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해외 건설 시장은 국내 시장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도내 업체들도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간담회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26일 오후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김규태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과 최원식 도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1분기 건설투자 증가율 5.9% '15년만에 최고' 경제성장률은 0.4% 증가그쳐

지난 1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약 15년 만에 최고치인 5.9%를 달성했다. 이같은 건설투자 호조에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계절조정계열)는 전 분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01년 3분기의 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한 건물건설과 정부의 지출

확대에 따른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나면서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분기 GDP는 371조845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4% 늘었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7%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1분기 성장률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이 컸던 작년 2분기(0.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최남영기자 hnews@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26일 오후 강원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도(건설교통국장 최원식),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태)와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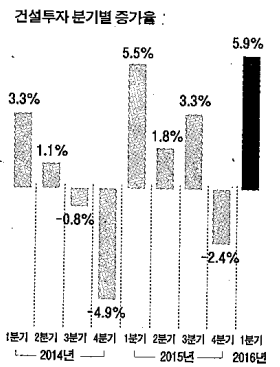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설단체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울러 국가적 전략 미래 요소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뉴스 돋보기 1분기 건설투자 '빛과 그늘'

신규주택 혼풍·재정 조기집행 '약효' SOC 예산 축소... '약발 소멸' 우려

지난 1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5.9%라는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낸 것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한 건물건설과 정부의 지출 확대에 따른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출규제 강화로 기존 주택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분양 시장은 지난해처럼 호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각각



주거용·토목건설 증가영향 성장기여도 0.9%로 맹활약 내년 투자증가율 2.2% 전망

4만7536가구와 5만3723가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42.9%, 61.3%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장에 나온 신규 주택의 공사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건설 기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토목건설 확대도 건설투자 증가에 한몫했다.

정부의 올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계획 대비 14조3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134조원이었다. 1분기 총 집행액 148조3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는 92조1000억원을 집행해 계획(86조5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도 1%에 달했다. 1분기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9%다.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로 지난해 4분기 0.7% 성장에 그친 건설업 생산율은 3.2%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주택시장 호황과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증가 등으로 나타난 건설투자

와 건설업 생산 급증세가 올해 약발은 다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건설투자와 건설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올해 신규 SOC 투자 최소화를 계획하고 있는 등 건설투자가 다시 1%대 안팎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규모는 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24조8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에는 20조원을 겨우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반영해 한은이 예상한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전망치(4.4%)보다 2.2%포인트 낮은 2.2%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내수와 수출의 부진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제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워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3%대 성장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영기자 hnews@